

The Media Korea

Email : themediak@gmail.com Tel : 021-5579-6569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코참 윤리제고 공청회 열어 ... 교민사회 "자정노력" 다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이 .취임식 제6대 박재한 한인회장 취임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019년 3월 28일 11시, 대사관 강당에서 한인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제 6대 한인회의 출범을 알리고 새로운 한인회장을 맞이하는 이 행사는 대사관, 한인회 임원 등 많은 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한인동포들이 참석하여 박재한 한인회장과 집행부의 앞날을 축하했다.

김장범 대사는 “지난 3년간 한인회와 함께 준비하고 협동하여 여러 행사들을 잘 치러 낼 수 있었던 것은 양영연 전 회장님의 리더십 덕분이었다. 한인사회가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원로 지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도약의 미래를 여는 하나 되는 한인회로 박재한 회장님이 이끄시리라 생각한다.

한인회와 대사관이 2인 3각하는 자세로 함께 전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양영연 전 한인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3년간 한인회와 행복한 동행이었다. 한인사회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고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닌 ‘우리가 맞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는 제 6대 회장단이 되길 바란다”며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양영연 전



▲ 제6대 한인회장에 취임한 박재한 신임회장이 한인회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Aditya)

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김종현 신임수석부회장의 한인회기 입장으로 한인회기가 이양되고 박재한 회장의 취임사를 들었다.

신임 박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한인회는 봉사단체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이어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 더 많은 한인들의 한인회를 향한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인회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모든 활동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하겠다”며 제 6대 한인회는 동포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해 나가

는 한인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신기엽 명예고문은 “

낮은 자세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 존경받는 한인사회가 되기 위해

법을 준수함은 물론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며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인목회자협의회 김종성 회장은 “시간은 기회이다. 3년 동안 한인들을 섬기는 자세로 소명의를 갖고 최선을 다하며 낙오된 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챙겨주는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신임 수석 부회장(손한평, 김희년, 김종현, 채영애)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고 혼성4중창단의 ‘산 넘어 남촌에는’, ‘고향의 봄’의 축하 공연, 시루떡 커팅 후 사진촬영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서 19개의 상임분과위원회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동포사회의 다양한 특별활동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교통부, 반둥-찌르본-끄르따자띠 신공항 연결 철도 부설 계획

인도네시아 교통부 철도국은 20일 서부 자바의 끄르따자띠 신국제 공항과 반둥, 찌르본 등 2개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드퓌크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앙 자카르타 끄르따자띠 국제전시장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에서 개막한 ‘인도네시아 철도 컨퍼런스 2019(Indonesia Railway



Conference 2019) 개막식에서 철도국의 유디 과장은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해서 끄르따자띠 공항으로 오기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끄르따자띠 공항은 지난해 5

월 공용 개시했다. 반둥-찌르본 간 철도가 있지만 어느 도시에서도 직접 끄르따자띠 공항으로 향하는 철도 노선은 없다.

자동차를 이용해 공항으로 가는 경우 찌르본에서 찌코뽀-빨리마난 고속도로를 경유해야 한다. 반둥에서 약 1시간 일반 도로를 통해 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공항까지 총 3시간이 걸린다.

JOUN DOOR

Flooring, Skirting

PT. DONG SEO Furniture
Doors and Furniture Spesialis

Our Product :

- Doors & Frame
- Furniture Oustom
- Interior Molding
- Flooring
- Skirting
- Paint finish
- + Wood Veneer
- + Duco
- Laminate Finish
- + HPL
- + PVC
- Alumunium door & Frame

Furniture DONGSEO

Kawasan Industri Manis II, Jl.Palm Manis IV No.61
Gandasari, Jatiuwung, Tangerang Banten - Indonesia

Marketing contact :
☎ +62 021 591 5637
✉ dongseowood@yahoo.co.id

인니 대선 여야후보 지지율 격차 좁혀져... 접전 예고



▲ TV 대선토론을 벌이는 조코위 대통령과 뿌라보위 총재 [스트레이트스 타임스 캡처]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현 대통령과 야권 대선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릿방 콤파스는 지난달 22일부터 12일간 전국 남녀 2천 명을 조사한 결과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한 비율이 49.2%에 달했다고 전날 밝혔다. 야권 대선후보인 뿌라보위 수비안또 대인도네시아운동

당(그린드라당) 총재와 러닝메이트인 산디아가 우노 전 자카르타 부지사를 지지하는 응답은 37.4%에 그쳤다. 응답자의 13.4%는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길 거부했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2.2%포인트다. 조코위 대통령과 뿌라보위 총재의 지지율 격차는 11.8%포인트에 달한다. 하지만, 작년 10월 릿방 콤파스가 진행한 같은 여론조사에선 양자의 지지율 격차가 19.9%포인트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해 9월 말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

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릿방 콤파스는 베이비붐 세대와 31~40세 유권자의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사모펀드 재벌 출신인 산디아가 전 부지사가 현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비판하며 인기몰이를 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조코위 대선 캠프의 무피아 하팻 대변인은 조코위 대통령이 큰 차이로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변함은 없었다면서 “2014년 대선 당시보다 득표율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코위 대통령과 뿌라보위 총재는 지난 2014년 대선에서도 맞대결을 벌였다. 당시에는 53.15%를 득표한 조코위 대통령이 프라보워 후보(46.85%)를 6.2%포인트 차로 제치고 승리했다.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은 올해 4월 17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약 1억8천700만 명의 유권자가 참가해 투표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무보, 한국기업 수주 전제로 인니 발주처에 금융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오른쪽)이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페르타미나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경우 무보가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페르타미나는 인도네시아 전체 석유의 90%를 처리할 수 있는 정제시설과 독점적 판매망을 보유한 기업으로 앞으로 가스, 석유, 석유화학, 수송용

선박, 해양플랜트 분야의 협력이 기대된다. 페르타미나는 2025년까지 정제능력을 두배로 늘리기 위한 정유플랜트 신·증설을 추진 중이며 작년 말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SK건설이 40억달러 규모의 증설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무보는 올해 안으로 페르타미나에 사전금융한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금융한도는 한국기업의 수주를 전제로 무보가 발주처에 신용한도를 미리 제공하는 제도다. 사전금융한도를 활용하면 발주처는 자금조달 걱정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한국기업은 금융주선 부담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무보 이인호 사장은 “앞으로도 국영에너지 기업과 글로벌 우량기업에 대한 사전금융한도 제공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경제성장 핵심은 고속도로 건설 ... 더 빠르게 추진할 것”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

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을 더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북부 수마트라 폐단에서 실시한 언론사 간담회에서 “말레이시아

는 인도네시아 보다 뒤늦게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어 “고속도로는 물류 효율화에 기여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각지의

고속도로를 더욱 빠르게 정비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연장 782킬로미터의 고속도로가 건설됐다. 정부는 올해 말 1,854킬로미터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인니 비즈니스의 脈

20년 세월! 한인동포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과 인허가, 비자대행 업무로 한결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뢰와 성실로 다져온 CITRA CONSULTING은 한인동포의 어려움과 보다 안정된 사업을 위해 함께 해 나갈것입니다

Try your best rather than be the best

CITRA Consulting

주요업무

시장조사 / 회사설립 / 수출입 관련 서류 및 보세구역 / 체류관련 / 기타 업무

한인기업 야반도주 파문에 인니 교민사회 “자정 노력” 다짐

퇴직금 지급 대비 적립 · 한계기업 폐업시 조기지원 제도 등 논의



▲ 야반도주 파문에 인니 교민사회 ‘윤리제고’ 공청회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사무실에서 ‘한인기업 윤리제고를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 대표의 야반도주와 임금체불로 인한 파문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현지 한인사회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자정 노력에 나섰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는 23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시내 사무실에서 ‘한인기업 윤리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봉제협의회(KOGA),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주아세안 한국대표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에선 한인기업의 야반도주 실태와 원인, 예방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이 논의됐다.

KOGA 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재한 한인회장은 “오너가 책임감 없이 한국으로 돌아간 것은 도덕적 측면에서 충분히 문제가 된다. 그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부터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화한 한국 봉제업체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채산성이 악화해 왔다.

서(西)자바 주에 밀집해 있던 한인 봉제업체 일부는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 영세 업체들은 파산

할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다. KOGA의 김동석 사무총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제대로 임금을 주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기업이 많다”면서 따뜻한 겨울 날씨 등의 영향으로 대량의 재고가 쌓인 만큼 올해 5월 전후 또다시 야반도주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인도네시아 내 한인기업 전반을 악덕 기업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경계하면서도, 시대상의 변화에 걸맞게 기업윤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한 참석자는 “한인기업 전반이 나쁜 행실을 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상당히 왜곡됐지만, 이 나라 법규를

최대한 준수하는 쪽으로 기업 윤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하려면 기업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폐업을 할 경우 최대 분쟁요소가 되는 퇴직금 지급을 대비해 연 매출의 5% 내외를 매년 사외에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한계기업 폐업 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 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인도네시아 노동계는 서(西)자바 주의 봉제업체

SKB의 대표 A씨가 작년 10월 잠적한 사건을 대대적으로 이 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A씨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6억5천만원을 마련해 송금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 측이 요구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해 쉽게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법원은 내달 22일 SKB의 청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지 일각에선 SKB 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2012년 삼성전자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했을 당시 무노조 경영에 반발한 노동계가 한국 노동·인권단체와 연대해 1년이 넘게 집회를 벌였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성지건설, 2조원대 인니 항구개발사업 수주



성지건설이 약 2조원대 규모의 인도네시아 항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성지건설은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인도네시아 국영항만사 펠린도 1 사(PT. Pelindo I)와 탄중사우항만 공동개발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남동쪽 바탐섬에 컨테이너 항만을 개발하는 공사로, 추정사업비는 약 20억불, 한화로 약 2조원 규모다. 완공 후 오는

2022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인도네시아는 항만 개발로 그동안 부족했던 인프라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해당 지역을 산업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성지건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최대 항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자사의 고도 성장과 수익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수주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건설 수주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수도권 인프라 정비 10년간 571조 투입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카르타와 서부자바 주 브카시 등 자카르타 수도권의 인프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571조 루피아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로 교통 인프라 확장 비용에 투입된다.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도 바라고 있다.

현지 언론 끈판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설립하기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관료가 아니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한다”라고 말했다.

아니스 주지사는 이날 유수프 칼라 부통령과의 회담 후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확보 방법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 외 상수도망 구축, 쓰레기 처리시설 정비, 60만 가구의 주택 건설 등을 목표로 한다. 하수도망의 보급률은 현재 14%에서 81%까지 확대한다.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구멍조끼,수영보드,헬멧 및 장갑,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정부, 인니·필리핀·말레이와 양자 FTA 체결에 '속도' 산업부 통상정책 방향...RCEP 지지부진하자 양자 협정 강화로 선회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제12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이 같은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3국과 양자 FTA를 조속히 매듭짓고 이들 FTA와 연계한 산업, 에너지 등 분야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3개국을 비롯해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추진하고 있는데 RCEP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다자 대신 양자 무역협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에 예정된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통상추진위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논의와 디지털

교역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비한 대응도 점검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 등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은 부유한 국가들이 자신을 개도국으로 지칭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국도 농업과 수산물 등 일부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세계 6대 수출국이라는 우리 위상에 걸맞게

WTO 규범 제정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고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규범 논의를 주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개시될 예정인 WTO 전자상거래 공식협상에도 참여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완료했으나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보다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출 애로를 점검차 충북 청주 녹십자 오창공장을 방문해 사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3.1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긴장감을 갖고 엄중하게 통상현안에 대응하고 미래 전략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야반도주 논란'에 노동부, 인니 한인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



▲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아야나 미드플라자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9 한인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에서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3.26 [사진:연합뉴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인의 야반도주와 임금체불 사건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현지에서 한인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관리 세미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자카르타에서 '2019 한인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사발전재단과 현지 한국대사관,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현지 한인기업 최고경영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인도네시아 노동법규와 과산·청산 절차, 노사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서(西)자바 주의 봉제기업 SKB의 한국인 대표 A씨가 임금을 체불한 채 잠적한 사건도 거론됐다.

송창근 KOCHAM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SKB의 사례를 거론하며 "피할 수 없었던 사건 같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해당 지역의 임금경쟁력이 사라졌고, 노동집약적 사업은 더욱 그러했다"고 배경을 설

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천500여개 한인기업 상당수가 이미 지 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를 교훈 삼아 기업윤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는 "한인기업과 한인사회가 높은 과고를 만났다는 인상을 받는다"면서 "이 세미나가 기업운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이날 오전 무하맛 하늬프 다끼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을 만나 SKB 사태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작년 10월 잠적해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SKB 대표 A씨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6억5천만원을 마련해 송금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 측이 요구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해 쉽게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법원은 내달 22일 SKB의 청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노동계는 한국 노동인권단체와 연대해 SKB 사건을 대대적으로 이슈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 주류언론은 올해 1월 24일 CNN인도네시아가 SKB의 임금체불 사태를 보도한 것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 사안에 아직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OK저축은행, 인니 인수 은행 합병안 통과



OK저축은행, 아프로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 등이 소속된 아프로서비스그룹이 OK저축은행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의 디나르뱅크(Bank Dinar)는 현지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현재 OK뱅크 인도네시아(옛 안다라뱅크:Bank Andara)와의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2016년 12월 디나르뱅크

의 지분 77.4%를 인수한지 약 2년만인 지난해 10월에 서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JK)으로부터 디나르뱅크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의 OK저축은행 관계자는 "합병안 통과 이후 현지 금융당국의 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올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두은행의 합병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은행이 통합되면 통합은행은 중소형급인 'BUKU2'은행으로 인정받게 된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기본자본(Tier1) 규모에 따라 120여개 은행을 BUKU1~4로 분류한다. BUKU4에 해당하는은행이 가장 규모가 크고 우량하다.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실크로드 디자인 연구소는 코파의 힘, 봉제협회 코가지,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의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고객의 마음을
훔치겠습니다!



인니, 中에 103조 원대 일대일로 사업 무더기 제안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자카르타 지하철(MRT)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대외경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동참해 103조원 상당의 인프라 건설사업을 중국 투자자들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훗 팡자이판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장관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일대일로 관련 포럼에 참석한 뒤 20~21일 발리에서 개최될 회의에서 중국 투자자들에게 28개 프로젝트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안될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는 911억 달러(약 103조원)” 라면서 이 중 2~3개 프로젝트는 그 자리에서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제안할 프로젝트는 북(北)수마트라, 북(北)칼리만탄, 북(北)술라웨시, 발리 등 4개 주에 항구와 산업단

지, 발전소, 제련소, 관광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4개 주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역종합경제회랑’으로 선정한 지역이다.

토머스 램봉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장관은 “이 4개 지역은 중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 나름의 강점을 갖고 있다”면서 “예컨대 북수마트라는 교통의 요지인 플라카 해협과 가깝고 판오일 산업의 허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칼리만탄은 수력발전이 유리해 중국 제련소가 이전하기에 이상적인 입지를 갖고 있고, 북술라웨시는 인

도네시아에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투자자들은 새로 제안되는 28개 프로젝트와 별개로 이미 87억 달러(약 9조8천억 원) 상당의 7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루훗 장관은 중국의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이류 기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현지인 노동자를 최대한 고용해야 하고 기술이전이 이뤄져야 하며 해당 사업이 인도네시아 국내에

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을 비롯해 일대일로 차원에서 진행되는 중국주도 인프라 개발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세계 152개국에서 대대적인 인프라 개발 사업을 벌여왔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경제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와 항만,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연합뉴스]

롯데케미칼 인니공장, IT 인프라 구축

롯데정보통신과 약 5100만원 규모 계약 체결

롯데정보통신이 롯데케미칼의 자회사 롯데케미칼타이탄 인도네시아(LCTN)에 정보통신(IT)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CTN이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 인도네시아와 IT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사내 이메일 등 전반적인 IT 서비

스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매년 진행했던 계약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롯데정보통신은 LCTN에 IT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 금액은 6억4700만 루피아(약 5100만원)로 기간은 오는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LCTN은 최적화된 IT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폴리에틸렌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기준 1위다.

작년 12월에는 4조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 자바섬 반텐주에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돌입했다. 롯데케미칼은 2023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65만톤의 폴리에틸렌과 100만톤의 에틸렌을 갖출 계획이다.

롯데정보통신은 인도네시아



▲ 롯데케미칼 타이탄 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에서 시장 확대를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사는 롯데그룹의 사업 확장 효과로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 33억원, 영업이익 17억원을 올렸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자회사 중에 가장 크다.



소중한 새싹

갓 피어난 새싹처럼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세찬 풍파 속에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푸른 새싹이
큰 나무로
성장 할 수 있는
멘토를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JC PT. JOO CONSULTANT

Office : Karawaci Office Park (Ruko Pinangsia) Block D37 Lippo Karawaci Tangerang
Tel : (021) 558 1618
Email : joo_consultant@hotmail.com/jooconsultant@hanmail.net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외)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인니 미인대회 우승자 “한국 마스크팩이 비결” ... 한류열풍 후끈

한류스타 팬 사인회 참석하려 1천만원 넘게 앨범 사 모은 사례도
“시간·돈 낭비” ... 현지 일각선 과열 우려 목소리 나와

인도네시아 최고 권위의 미인대회인 ‘뿌뜨리 인도네시아 2019’ (Puteri Indonesia 2019)의 우승자가 미모의 비결 중 하나로 ‘한국산 마스크팩’을 꼽아 눈길을 끈다.

12일 CNN인도네시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뿌뜨리 인도네시아 2019 결선에서 우승한 프레데리카 알렉시스 켈(20)은 11일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을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프레데리카는 피부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산 시트 마스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다. 예컨대 오전에는 한국 시트 마스크를 하고, 오후에는 각질 제거용 마스크팩을 다시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팩을 열심히 하는 것과 자극이 없는 클렌저를 쓰는 것, 천연원료로 된 뷰티 제품만 쓰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프레데리카의 이런 발언은 최근 들어 부쩍 기세가 강해



▲ 2019년 3월 8일 열린 뿌뜨리 인도네시아 2019 결선에서 우승한 프레데리카 알렉시스 켈(20) [유튜브 캡처]

진 인도네시아의 한류 열풍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인도네시아 온라인 매체들은 한국 연예계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기성 언론은 인도네시아 케이팝 팬과 젊은 층이 한국 문

화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한 심층 보도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한류 열풍이 당분간 더욱 강해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열기가 뜨겁다 보니 일어나는 잡음도 적지 않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항은



▲그룹 블랙핑크가 2019년 1월 19~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BLACKPINK 2019 WORLD TOUR with KIA [IN YOUR AREA] JAKARTA’를 열고 현지 팬들과 만난 모습. [YG엔터테인먼트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부 팬들이 과도한 지출을 한다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케이팝 콘서트의 입장료는 통상 110만~250만 루피아(약 8만 7천~19만8천원) 수준이다. 가장 부유한 지역인 자카르타의 올해 최저임금이 월 394만 루피아(약 31만3천원)로 책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도 인기스타 콘서트는 매번 매진되고 있으며, 관련 상품도 불티나듯 팔린다.

최근에는 수년 전부터 아이돌그룹 빅스(VIXX)의 스페셜 앨범을 무더기로 사들여 온 인

도네시아 케이팝 팬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팬은 앨범에 낮은 확률로 들어 있는 팬 사인회 초대권을 얻기 위해 매장에 비치된 같은 앨범 수십 개를 무더기로 사들이는 방법으로 9차례 진행된 팬 사인회 중 7차례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1천만원 이상을 썼지만, 후회는 없다. 남은 앨범은 약간 싼 가격에 되팔았다”고 말했다.

보수적 성향의 기성세대는 케이팝에 빠진 젊은이들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환상에 빠져 현실감을 잃고 있다고 우려한다. 한류스타에 열광하는 모습이 마치 연예인을 신격화하는 듯 보인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케이팝 팬들은 개인의 취미생활일 뿐이라면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지 심리학 전문가인 비에라 아텔라는 “한류 현상은 미디어와 관련 산업, 소셜미디어의 전방위적 지원 속에 매우 세련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팬들이 스타와 강력한 유대감을 갖도록 한다고 분석했다.

비에라는 “이건 케이티 페리나 저스틴 비버 같은 보통의 아이돌과는 다른 점”이라면서 한류 팬덤과 관련한 정신질환 사례를 자주 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류 현상은 인도네시아 유력 인사들의 한류 배우 기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최근 수출 증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1970년대 한국의 쥐잡기 운동을 예시로 들어 관심을 모았다.

물야니 장관은 “한국도 한때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곳곳이 굶주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에 불평하기보다 해법을 찾았다. 쥐가 많으니 쥐를 잡아 가족을 수출한 것”이라면서 인도네시아 각 지역도 새로운 수출 상품을 개발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반딧 ‘BSD 스마트시티’, 제2의 실리콘밸리 주목



인도네시아 반딧 주 땅으랑의 복합 개발 지구 ‘BSD(Bumi Serpong Damai) 시티’가 제2의 실리콘밸리로 주목받고 있다.

6,000ha 규모의 BSD 시티는 올해 내 동남아시아 유력의 ‘스마트시티’로 완공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는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통·건강정보·치안 등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다.

기존의 전통적 산업이 대도시 위주로 발전했던 것과 달리 스마트시티 산업은 발리·칼리만탄 등 지역 도시 위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산업 4.0 로드맵(Making Indonesia 4.0 Roadmap)’에 따라 향후 인

도네시아의 스마트시티 산업이 비약적 발전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인 그랩과 부동산 대기업 시나르마스 랜드(PT Sinar-mas Land)가 전일 BSD 지역에 연구개발(R&D)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나르마스는 BSD 신도시 개발을 주관하고 있으며, 그랩은 인공지능(AI)·자율

주행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시티 건설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BSD 시티에는 스마트폰용 모바일 결제 앱, 전자지갑(e-wallet), 커뮤니티 플랫폼 등도 구축된다. 광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이미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와 제휴를 맺은 상태다.

BSD 시티 인근에는 인도네시아 컨벤션센터(ICE)가 위치해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산업의 중심지로 육성될 전망이다. ICE에는 지난 2017년부터 ‘스마트 홈·빌딩·시티’ 전시가 열려 전세계 곳곳에서 업계 종사자들이 몰리고 있다.

미디어 코리아 광고를 제안합니다.

미디어 코리아는 귀사의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특징

미디어 코리아는 탄탄한 디자인파워를 바탕으로 한 타블로이드판 정보지로서 귀사의 홍보를 지면을 통해 대행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함께하는 매체로 다가갈 것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GOOD LIFE

지난 1일 서울 역삼동의 공유주방 ‘심플키친’. 언뜻 보면 어느 쇼핑몰의 푸드코트와 비슷하다. 넓은 공간에 흩어진 주방 9곳에선 요리와 포장의 한창이었다.

푸드코트와 다른 점이라면 이곳에는 손님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좌석이 없다. 공간 전체가 투명 칸막이로 구분된 4~5평(약 13㎡) 규모의 작은 주방들로 이뤄져 있다. 개별 주방에서 요리한 음식은 전부 외부로 배달된다.

심플키친은 외식 사업자에 주방을 빌려주는 공유주방이다. 외식 사업자는 한 달에 160만원의 이용료를 내면 4~5평 크기의 작은 주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날 하와이 샐러드 전문점인 ‘서울포케’ 직원들은 시간 맞춰 찾아온 배달업체 직원에게 포장한 음식을 전달하고 있었다. 임대인 심플키친 대표는 “강남에서 주방을 갖춘 식당을 창업하려면 최소 5000만원이 드는데 공유주방을 사용하면 초기 창업 비용과 고정비를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계에 주방을 빌려주는 ‘공유주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공유주방이란 주방 설비와 기기를 갖춘 공간을 외식 사업자들에게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 중이며, 한국에서는 지난해부터 공유주방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 공유주방은 외식 창업의 최대 장벽인 ‘공간’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전까지는 식당을 운영하려면 공간이 필요했다. 일반적으로 주방을 갖춘 식

당을 창업하려면 보증금(약 2500만원),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약 2500만원) 등 초기 창업 비용만 적어도 5000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식당을 낸 공간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식재료 구매비용, 배달 대행 수수료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

공유주방은 시간당 사용료를 내고 주방을 빌리는 구조라 적은 비용으로도 누구나

외식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월 160만원의 이용료와 보증금 1000만원이면 음식점 사장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여기

고 있다.

공유주방의 종류도 다양하다. 심플키친처럼 외식업체에 주방만 빌려주는 ‘배달 특화’ 공유주방부터 외식 사업자들에게 메뉴개발, 영업, 디자인 등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5일 서울 사직동에 지점을 연

사를 고용해 외식 브랜드 10개를 개발하는 방향을 택했다. 개별 브랜드의 셰프들이 개방된 주방에서 한식, 일식,

하루를 공유하기 때문에 재료 낭비를 줄이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서 “키친서울에서의 판매 데이터를 토대로 인기 제품을 가정간편식(HMR)으로 개발해 판매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기도 수월하다”고 말했다. 키친서울은 지난달 카카오벤처스, 비하이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13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밖에 빵 전문 공유주방도 등장했다. 오티디(OTD)는 이달 중 서울 명동에 ‘공유 빵 공장’을 연다.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켈러닉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클라우드 키친’이라는 공유주방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 안으로 한국에 2호점을 낼 예정이다. 이미 유명 맛집 10여곳 정도가 입점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 시장 포화 등의 여파로 외식업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유주방이 미래 외식업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공유주방을 운영 중인 업체만 12여개에 달하며,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방을 빌려줍니다” 우버도 뛰어든 ‘공유주방’ 급성장



▲ 서울 역삼동 공유주방 ‘키친서울’에서 한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있다.

에 15조원대로 커진 국내 배달 시장, 온라인 플랫폼 등 음식을 유통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지면서 식당 없이도 외식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공유주방 업체들은 우버이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업체와 손잡고 음식을 배달하

‘위쿱’은 입주 업체에 브랜딩, 마케팅, 메뉴 개발 등의 교육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공유주방’을 운영한다.

‘키친서울’이라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오픈더테이블은 외부 업체에 공간을 대여해주는 대신 직접 셰프(요리

중식, 양식 요리를 함께 하고 고객은 셰프가 만든 요리를 배달해 먹는 구조다. 미국에서는 이를 고스트키친(ghost kitchen), 또는 다크키친(dark kitchen)이라고 한다.

키친서울 관계자는 “브랜드 캐리 식재료와 주방 운영 노

동남아 디지털 사회 전환 이끄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나란히 신남방정책의 양대 축을 형성하는 아세안을 대표하는 국가 중 하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와 함께 동남아시아 해양부를 구성하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만7000개 넘는 섬을 보유한 도서 국가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이웃한 싱가포르와 더불어 동남아를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서 이끌고 있다.

인터넷 사용 인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며 손 안에 디지털 세상이 펼

쳐지면서 디지털 경제 확산에 속도가 불기 시작한 것. 개인적으로도 이 무렵을 기점으로 수도 자카르타의 대형 쇼핑몰 내부, 중심가 대로변 등에 유력 스타트업들 광고판이 하나둘씩 등장했던 기억이 뚜렷하다.

초기 전자상거래와 커뮤니티 사이트,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가 기지개를 폈다면, 얼마 전부터는 공유 오피스와 핀테크 산업 등이 배턴을 넘겨받은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디지

털 경제가 현지 특수성과 연관돼 발전해 왔다고 분석한다. 우선 남한의 20배에 달하는 국토 면적을 꼽을 수 있다. 무인도만 1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광활한 섬나라 특성상, 굳이 예산 문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아날로그식 유선 네트워크 구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10년대 들어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던 경공업으로 상징되는 2차 산업은 물론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이 담당하는 비중 또한 예전 같지 않다.

실제 세계은행에 따르면, 3차 산업은 2017년 기준 인도네시아 경제의 46%를 책임졌다. 반면 같은 기간 2차 산업과 1차 산업 비중은 각각 40%, 14% 수준에 머물렀다. 2010년과 비교하면, 1차 산업 비중(15%)이 다소 감소한 가운데 2차 산업(47%)의 하락세와 3차 산업(37%)의 성

장세가 대조를 이룬다.

즉 유통업과 금융업, 통신업 등 3차 산업이 팽창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발전에도 탄력이 불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디지털 경제를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개방적 자세도 빼놓기 어렵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 모델 중 하나인 공유 경제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이를 잘 드러낸다.

글로벌 여론조사 기업 닐슨에 따르면, 동남아인들은 인도네시아(87%), 필리핀(85%), 태국(84%) 등 전 세계 평균 66%를 훌쩍 뛰어넘는 적극적인 공유 경제 수용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디지털 경제 모델이 지속적으로 등장해 일상의 변화를 꾀하는 데는,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열린 의식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고젝(Go-Jek), 토크피디아(Tokopedia) 등 동남아를 대표하는 유니콘 스타트업(기업 가치가 10

억달러를 넘는 스타트업)들이 하나둘씩 탄생하면서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는 매년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구글과 테마섹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시장 가치는 2018년 기준 270억달러(약 30조2900억원)로 조사됐다.

이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디지털 경제 중 최대 규모로, 2025년에는 시장 가치가 3배 이상 증가한 1000억달러(약 112조17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핵심 분야 4개인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여행, 차량 호출 서비스 및 온라인 미디어가 각각 53%, 25%, 14%, 8% 등 비중으로 디지털 경제 팽창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국적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기술에 친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370만여 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본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앞날에 비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도네시아 MUI 할랄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 MUI (Majelis Ulama Indonesia)의 한국지사 겸 인도네시아 할랄정보센터인 ㈜브이디에프코리아(VDF Korea, 대표 노창동)는 인도네시아 MUI 할랄교육팀 초청하여 2019년 3월 12일 (화)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SK V1 컨퍼런스룸에서 롯데푸드, 동아오츠카, 대상, 풀무원, 일화등 주요 식품기업을 비롯하여 대덕랩코, 콜마등의 주요 화장품기업등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50여개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하여 2019년 1차 MUI 할랄교육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MUI 할랄교육은인도네시아 할랄시장의 전망, 할랄 인증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등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MUI 할랄인증획득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각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해소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로 한국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MUI 할랄인증 제품만 가능하며, 특정국가나 타할랄기관의 할랄인증으로 인도네시아 수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2억 8천의 세계 인구 4위의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첫 출발국가이며, 전체인구 80%이상의 무슬림인구로 세계최대의 단일국가로서의 무슬림 할랄시장이자이다.

말레이시아 JAKIM, 싱가포르 MUIS 와 함께 인도네시아 MUI 할랄인증은 세계 3대 할랄기관의 하나이며, 중동등 무슬림국가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할랄인증이 바로 인도네시아 MUI 할랄인증이다.

현재 중동, 유럽등 많은 무슬림국가에서는 식품, 화장품등 할랄과 관련된 상품들을 무슬림의 인지도가 높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땅어랑 소재의 비스켓등 스낵류를 생산하는 제과류회사에서는 매월 평균 2,000대의 컨테이너가 중동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세계 4위의 인구대국, 해양국가로써의 광활한 영토를 가진 인도네시아, 포스트 차이나 이후 한국의 식품, 화장품, 의약품등이 반드시 할랄시장을 공략을 해야하는 주요한 국가중의 하나가 인도네시아이다.

㈜브이디에프 코리아 노창동 대표는 한국기업들이 1970년대부터 원목, 합판, 자원개발등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해왔으며 1980년대부터는 신발, 봉제, 전자등 노동집약적 제조업 또한 현재까지 성공적인 해외진출국가로 언급하면서 이제는 한국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식품, 화장품, 의약품등할랄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수출을 중대를 꾀하는 장기적인 정책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위한 외국제품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제도나 사전등록절차를 통해 엄격관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시장공략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수입제도 이해 및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등록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한국의 롯데, 대상, CJ 등의 대기업들은 사전 수입등록으로 이미 성공리에 진출하고 있으나 한국의중소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을 진출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시장진출을 모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중도에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으며, 정부적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맞는 맞춤형 수출지원제도를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었다

인도네시아는 k-POP, K-Drama 등의 한류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이고 사랑과 함께 한국식품이 웰빙푸드라는 인식과 한국화장품 사랑이 전국 곳곳에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켓에서 수입, 유통되고 있는 한국상품이 저조한 현실이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인도네시아 MUI 할랄교육을 ㈜브이디에프 코리아와 할랄인증분야의 대표적 컨설팅사인 ㈜한국중앙인증원과 공동주최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할랄시장을 진출을 위한 식품, 화장품, 의약품 제조기업에 대하여 MUI 할랄교육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진출과 수출증대 모색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할랄교육행사가 되었다.

**** 참고사항**
 (주)브이디에프코리아/ VDF KOREA CO., Ltd - 인도네시아 할랄기관 MUI 한국지사
 대표 노창동 0811-110-2156 / 010-9130-8527 vdf-indonesia@naver.com

꼬라까따우 스틸, 필레곤 제철소 2025년 완공 목표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 꼬라까따우 스틸(PT Krakatau Steel)은 한국 철강 기업 포스코(Posco)와 합작회사인 꼬라까따우 포스코(PT Krakatau Posco)와 공동으로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자바섬 서부 반딧 필레곤 제철소 목표 완공일자를 2025년을 잡았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철강 생산량이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지만,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등 국내 생산 체제를 강화한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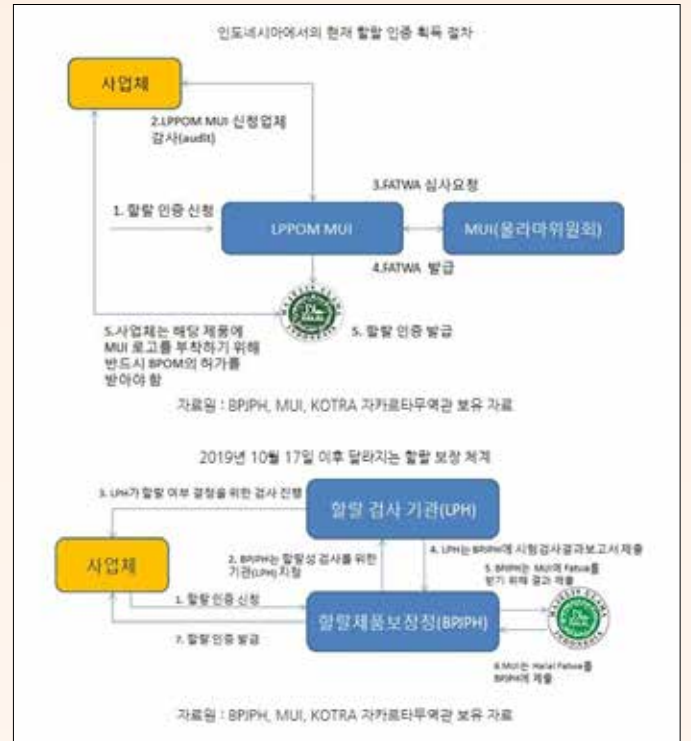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제철소 건설에 총 35억~45억 달러가 투입됐다. 완공 후 생산 능력은 연간 1,000만톤 규모에 달한다. 올해 5억 1,500만 달러를 투자해 건설하고 있는 열간 압연기 2호기가 6월에 조업 개시한다.

생산 능력은 연간 15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으로 인도네시아 철강 산업도 어려움에 빠져 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대규모 생산국은 이미 감산 체제에 들어갔다. 투자조정청(BKPM)의 토마스 램봉 청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입 관세를 대폭 확대하려고 한다. 대미국 철강제품 수출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MUI, 10월부터 할랄인증 의무화 추진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구인 인도네시아올라마위원회(MUI)가 모든 식품과 의약품과 화장품은 오는 10월 17일부터 할랄(Halal) 인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21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MUI 식품의약품감독원(LPPOM) 룡마눌 하킴 원장은 “할랄제품보장법률에 의거해, 올해부터 할랄인증이 의무화된다고” 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할랄이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제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아랍어로 ‘허용된 것’ 이라는 의미다.

그는 2014년 10월에 공포된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인 인도네시아 법령 2014년 제 33호(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을 인용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오는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할랄성(halalness) 관리 권한을 갖게 되며, 종교부가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정부는 할랄인증 실무를 담당할 할랄제품보장청(BPJPH)을 지난 2017년 10월 11일에 종교부 산하에 설립했다.

하지만 제품의 할랄 검사와 시험은 MUI 산하 검사기관인 LPH가 하게 된다.

그동안 민간기관인 MUI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 할랄 심사와 인증 등을 총괄해왔다.

그동안 할랄인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무슬림이 87% 이상인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할랄 인증을 부착한 제품

을 선호하고, 비무슬림 소비자도 할랄인증 받은 제품이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랄인증을 받았다.

특만 원장은 소비자들이 할랄제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랄인증 받는 것이 제품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MUI가 할랄 인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유사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MUI 인증을 획득하면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도 인정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은 MUI 로고 부착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2019년 10월 이후에의 식약청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부처들이 논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할랄을 관리하기 위해 할랄 제품보장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고, 7개 정부부처가 협의 하에 할랄인증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지만,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트라 자카르타 사무소가 지난 1월 24일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한 뉴스에 따르면, △ 새 규정 발효 후에도 기존 MUI 인증은 해당 인증의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 새 시스템이 정착되면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새 법령에 대한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건들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두산중공업, 1조6천억원 규모 인도네시아 발전사업 수주 자바 섬 1천MW급 화력발전소 2기 건설 계약...2024년 완공 예정



두산중공업은 인도네시아에서 화력발전소 2기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업체인 HK와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수주했으며 총공사비 약 2조9천억원 가운데 두산중공업의 수주 규모는 1조6천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발주처인 IRT는 인도네시아 전력청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파워와 발전·석유화학 전문 기업 바리토 퍼시픽 그룹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번에 수주한 발전소 2기 '자와(JAWA) 9·10호기'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120km 떨어진 자바 섬 서부 필레곤 지역에 건설된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세계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초초임계압(USC, Ultra Super Critical) 방식으로 1천 MW급 2기를 제작해 공급한다. 초초임계압 화력발전은 터

빈에 유입되는 증기 압력이 246kg/cm² 이상이고 증기 온도가 593도 이상인 발전소를 일컫는다. 증기 압력과 온도가 높을수록 발전 효율이 높아져 연료 소비가 줄고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두산중공업은 설계와 기자재 조달,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설계·조달·시공) 방식으로 진행하며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김성원 두산중공업 플랜트 EPC BG장은 "2016년 그라피, 2017년 무아라 따와르 복합화력발전이 이어 세계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고효율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도네시아 발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친환경 대형 화력발전 사업과 함께 신재생발전 사업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인도네시아·베트남 진출 금융사 지원

수석부원장, 인도네시아·베트남 금융당국자와 면담
기업은행 인도네시아 은행 인수·국내 보험사 베트남 진출 협조 당부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찾아 현지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지 진출 지원을 당부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 수석부원장은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웹보산토소(Wimboh Santoso) 청장 겸 의장과 만났다.

유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은행이 추진하는 현지 은행 인수·합병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출범하는 합병은행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현지에서 도입하려는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 서비스 등의 인허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현지 법인장의 적격성 심사나 본국 직원 인력 운용 제한, 현지 체류 허가 소요기간 단축 등 금융회사들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또 베트남을 방문해 전 수안 하 재무부 차관, 레 밉 흥 중앙은행 총재, 하 후이 뚜언 국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각각 면담했다.

그는 현대해상과 미래에셋생명, KB손해보험 등 국내 보험사들이 현지 보험사 지원 인수나 합작법인 설립 등의 방법으로 베트남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핀테크 기업의 베트남 진출 시 금융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금융감독 업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문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금융회사의 인허가 심사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금융회사 운영 중에 생기는 애로사항들도 원만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K - MOVE 프로그램 소개

1. K-MOVE?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 KOTRA 자카르타 K-MOVE 센터?

KOTRA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우리 구인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을 돕기 위해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K-MOVE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지원 프로그램?

(1) 해외취업장려금

- 1) 지원대상자: 만 34세이하 해외취업성공자

- 2) 취업인정기준: 취업비자, 단순 노무직 제외, 연봉 1,500만원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 3) 지원금액 : 최대 800만원 (1차3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인정요건 등 세부내용은 월드잡 회원가입 후 공고내용확인

(<https://www.worldjob.or.kr/ovsea/sbsd.do?menuId=1000000041>)

(2) 우리기업 채용 지원

- 1) 자카르타 경제신문, 인도웹 등 구인 광고비 지원(최대 90%)
- 2) 자카르타 K-MOVE 센터등록 인재풀 소개
- 3) 기업소개 자료 제작 및 기업 홍보 지원
- 4) 채용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ELITE
SINAR ABADI

가성비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공장 유니폼

단체복

골프복

기타

JWjindohwang@gmail.com

0812 1324 1251
021 5518 037

구인·구직, KOTRA (K-MOVE 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지원 및 혜택

구인광고 지원 :
신문-온라인 광고비
최대 90% 혜택

구직자 취업 후
정착지원금(800만원)지급
(만 34세 이하, 첫 취업 시 1년간 나누어 지급)

자세한 내용 문의 : KOTRA (K-MOVE 센터) 이은정 실장
(08111 350 444, 카톡 ID: ejleedoowang19,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니 투자’ KT&G, 문 정부 출범 때 전 소유주와 황급히 관계 정리

2017년 초 474억에 잔여지분 인수...조세도피처 회사 소유주에 1460억 전직 임원 “자산 평가 등 부실 진행” ...KT&G “경영 갈등 탓, 문제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소유주에게 898억원을 주고 경영권을 취득한 KT&G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전 소유주의 잔여지분을 황급히 정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KT&G는 잔여지분 청산과정에서 최초 인수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업가치를 순자산보다 5배나 높게 책정했다. 이로써 KT&G가 조세도피처에 폐이퍼컴퍼니를 둔 전 소유주에게 지급한 금액은 1460억원이 됐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KT&G는 2017년 3월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전 소유주인 조코에게 474억원을 주고 지분 40%(386억원)와 또 다른 자회사 지분 33%(88억원)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KT&G는 또 2017년 5월 조코가 보유하고 있던 트리삭티 전환사채(CB) 88억원을 인수함으로써 조코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KT&G는 잔여지분을 취득할 당시 트리삭티의 기업가치를 순자산(198억원)보다 5배 높은 1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조세도피처에 폐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조코에게 취득원가보다 5배 많은 897억원을 주고 지분 51%를 취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잔여지분의 가치를 5배 높게 평가해서 관계를 정리한 셈이다.

또 KT&G는 트리삭티 인수 당시 이종장부가 발견돼 조코가 책임져야 할 허위 재고



(약 150억원)를 2016년 말 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조코는 한 푼도 손감 없이 KT&G로부터 주식매각에 따른 이익금 1460억원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다. KT&G의 한 전직 임원은 “2017년 초 회사가 조코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정

신없이 바쁘게 움직였으며 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실사작업도 장부 실사만 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KT&G 측은 “2016년 말부터 조코와 회사 경영방법을 놓고 갈등이 심해 지분을 정리한 것일 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뉘를 숨기기 위해 관계를 정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오거돈 부산시장 인니 수라바야시와 조선 분야 협력 논의



부산시는 아세안 국가를 방문 중인 오거돈 부산시장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에 조선 분야 협력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26일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국영 조선소인 ‘PT PAL’을 방문해 해양플랜트 해체기술 교류와 조선기자재 업체 진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1939년 설립된 이 조선소에는 1천300여명이 근무하며 군함과 상선을 만들고 있다.

오 시장은 또 트리 리스마하리니 수라바야 시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선박 설계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협력할 ‘조선기술협력단’ 구성을 제안했다.

이 밖에 부산~수라바야 항공 직항로 개설,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마련 등도 논의했다.

부산시

‘한국비즈넷 구축’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 물류사업본부

통합물류솔루션 오픈! 비마루나 물류사업 경쟁력 강화 발판 마련

물류IT 전문기업 한국 비즈넷이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의 물류사업 본부인 비마루나 자야(PT.BIMARUNA JAYA)에 통합물류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한국 비즈넷은 자사의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비마루나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류IT 고도화를 이뤄내 양사가 Win-Win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한국 비즈넷은 4월1일 비마루나자야의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포워딩 시스템을 시작으로 창고부서 시스템을 구축한 비마루나는 이번 통합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러 업무

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일원화하는 한편, 물류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토대로 마련하게 됐다.

이 통합시스템엔 국가별 세제, 관세법 등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비마루나에 공급된 시스템에도 현지 물류 문화 및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을 적용했다.

1991년에 설립된 코린도 물류사업부 비마루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약 9만 5200m2 규모인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세 수출입과 일반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1만2000m3 및 일시 보관이 가능한 8000m2 규모의 물류센터가 동 중에 있다. 또한 내륙운

송과 수출입 컨테이너 국제물류 및 프로젝트 화물 서비스는 물론, 약 8000TEC 보관이 가능한 컨테이너 야드(CY) 운영 등 육상·해상·항공을 아우르는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컨테이너야드(CY) 운영, 육상운송, 보세물류창고(PLB.PusatLogistiks-Berikat)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마루나는 지금까지 축적한 물류 노하우를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 새 도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한 그룹사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기업 수출입업무 대행을 적극 수행하며 물류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코린도 물류사업본부 조명국

전무는 “G-SABI 시스템 구축 오픈을 통해 앞으로 인도네시아 물류시장을 선두하는 물류법인이 될 것이라 장담하며 시스템 구축에 힘을 써준 한국 비즈넷 측에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비즈넷은 이미 구축된 베트남 지사와 인도네시아에서 수행한 물류IT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회사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한국 비즈넷 김민중 부사장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에 상주하며 현지 물류업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고 현지문화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노력과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금의 솔루션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린도 그룹 홍보실

톱슨 목금형(톱슨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대로 65번길 38호 (범천1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인도네시아 86.5% “한국 여행하고 싶다” ... 선호도 1위



‘2018년 한국관광 인지도’ 조사에서 인도네시아 응답자의 86.5%가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고 답해 국가 중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개국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18년 한국관광 인지도’는 57.9%, 선호도는 59.5%로 나타났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진행했다.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여행 의향

이 있는 20개국 1만2,00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는 한국 선호도 86.5%, 인지도 73.3%로 전체 20개국 가운데 4위를 기록했다. 선호도만 보면, 인도네시아가 86.5%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베트남(84.8%), 태국(81.0%), 필리핀(74.2%)이 2~4위를 기록했다. 한류의 파급력이 큰 편인 아세안 국가의 인지도·선호도가 대체로 높았지만, 말레이시아(70.6%)와 싱가포르(66.2%)의 선호도는 예년보다 6~7%p 감소했다. 나라별 인지도는 베트남이 82.1%로 동남아 국가들이 대체로 높았고, 미주·유럽 국가는 50% 이하로 낮게 분포했다. 이례적으로 터키가 선호도 71.5%로 5위, 인지도

70.0%로 6위에 올랐다. 2017년보다 선호도는 14.1%p, 인지도는 23.5%p 증가해 눈에 띄었다.

우리금융, 인도네시아 ICT기업과 디지털 지급결제 협약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리테일 사업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과 현지

ICT 기업인 린피스 스자프라(PT. Rintis Sejahtera)와 디지털 지급결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린피스 스자프라는 인도네시아 직불카드 및 ATM 결제망을 운영 회사로, 전자 지급결제 대행 및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5년 금융결제원과 국가간 ATM 이용협약 체결한 인도네시아의 대



표적인 ICT 기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정훈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법인과 이완 스피아완(Iwan Setiawan) 린피스 세자페라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소다라은행은 인도네시아 차량공유 업체인 그랩(Grab)과 고젝(GO-JEK) 결제용 e-money 충전서비스, 항공권 결제, 보험료 수납 서비스 등을 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동포 청소년 모국체험 참가자 모집



▲ 재외동포재단 동포 청소년 모국 체험 연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오는 7월부터 두 달간 동포 청소년 모국체험 연수를 진행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동포 청소년 모국체험 연수는 이들이 모국의 사회·문화·역사를 체험해 민족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연수는 중고생의 경우 국내 11개 도시에서 7월 17일~23일, 7월 31일~8월 6일 두 차례로 나뉘어 열린다. 대


학생은 3개 도시에서 7월 9일~16일까지 진행된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역사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참가 인원은 지난해보다 400여명 늘려 1천30명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외동포재단은 동포 청소년의 참가를 늘리기 위해 동포 입양인과 입양인 자녀가 참가하면 항공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참가자는 항공료의 50%를 지원한다. 연수는 거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이면 참가할 수 있다. 동포 포털(www.korean.net)과 재외공관을 통해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월드코리아 2019 장학생 모집



월드코리아장학회에서 2019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동 장학회는 국내 대학에 들어와 수학하고 있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학업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2016년 출범했다.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세계 한인사회 자녀로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거나 입학 예정인 자 20~30 명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5박6일 만주 독립운동 탐방경비 지원과 20만원 현금 장학금을 포함하여 14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동 장학회는 역대 장학생으

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문화탐방 등의 이벤트를 열어 향후 세계한인사회의 후계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국내에 들어와 각 대학에 재학 중인 16개국 22명, 2017년에는 17개국 25명, 2018년에는 11개국 20명의 재외동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장학생 신청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30일까지이고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코리아 홈페이지에서(<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3867>)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 내역:

1. 현지 법인 설립(PMA, PMDN, 연락사무소)
2. 투자청, 온라인 허가(OSS, NIB-APIU, P)
3. 이타스(ITAS) 및 은퇴비자(LANSIA VISA)
4. 부동산(주택, 사무실, 공장, 건물 등)
5. 무역업무대행(제품, 원부자재소싱 등)

이메일 : ptgcc@hanmail.net 카카오톡 ID: kitas
Tel : 021-5577-6454, 021-551-4891
위치 : 땅그랑 리본 까라와치 루포 피남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18 (명가식당앞 상가)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분유도 못 사” ...인니 국영보험 지급불능 사태에 가입자 ‘눈물’

유동성 위기로 거의 반 년간 원금 지급 안 돼...피해 급증 보험사 지와스라야 “정상화 방안 적극 이행...2분기내 원금 지급 개시”

“분유는 물론이고 생필품조차 사기 힘듭니다. 제발 제 돈을 돌려주세요.”

5개월 전 첫 아이를 출산한 인도네시아인 여성 미따(27)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호소했다.

현지 한인기업에서 일하던 그는 오랫동안 염원하던 아기를 갖기로 하고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 아수란지 지와스라야의 저축성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일반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출산 후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동안 조금이나마 가게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정작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 미따와 가족들은 빈털터리로 아기를 맞이해야 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지와스라야가 원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따는 “못 받은 돈은 5천만 루피아(약 400만원)다. 내겐 정말로 큰돈” 이라고 말했다. 그는 “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남편의 월급은 800만 루피아(약 64만원)에 불과하다” 면서 “아기를 낳을 때를 위해 모아 놓은 돈이었기에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 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문제의 상품을 판매한 직원이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미따는 “돈을 예금 하려는데 가입 권유를 받았다” 면서 “JS 프로텍시 플랜이란 상품



이 있는데 예금형태이고 5년간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밖엔 아무런 설명도 안 해줬다. 나중에 지급이 거절됐을 때에야 이게 투자 상품이란 걸 알았다” 고 말했다.

미따와 마찬가지로 이 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내·외국인은 1만7천여명에 달한다.

지와스라야는 2013년부터 7개 시중은행을 통해 방카슈랑스 방식으로 JS 프로텍시 플랜을 판매했다. 이 상품은 금리가 연 6~9%로 예금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아서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지와스라야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였다가 심각한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지와스라야는 2017년 기준으로 뮤추얼 펀드와 주식에만 25조8천억 루피아(약 2조원)를 투자했다. 이는 전체 투자액의 61%에 해당한다.

지와스라야는 2017년 재정 보고서에서 이를 통해 2조4

천억 루피아(약 1천9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보고했지만, 작년 초 취임한 새 경영진이 회계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감사를 의뢰한 결과 실제 순이익은 3천600억 루피아(약 28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지와스라야는 작년 10월부터 JS 프로텍시 플랜 가입자들에게 만기가 도래해도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비싸게 산 뒤 싸게 팔아 국익을 해했다는 비판을 우려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주식매각을 통한 원금 지급을 꺼린 데다, 투자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은 즉각적인 현금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지와스라야는 당분간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구조조정과 다른 공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추가 유동성을 공급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최대 피해자는 일반 가입자들이다. 5개월 넘게 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자녀의 결혼이나 주택 구매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가입자들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한국 교민의 피해도 큰 편이다. 교민사회와 현지 업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해 해당 상품에 가입한 이는 한국인 470여명과 현지인 1천100여명 등 1천600여명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한국인이 약 420억원, 현지인이 약 1천150억원 가량이다. 이중 상당수는 이미 만기가 도래해 피해가 확정됐다. 18일 현재 지와스라야 사태 관련 교민 단체 채팅방에는 240여명이 들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교민 일부는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안내받아 JS 프로텍시 플랜에 가입하게 됐다면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역시 이 상품에 가입했다가 거의 전 재산이 묶였다는 인도네시아인 사업가는 “하나은행을 통한 가입자 중엔 인도네시아인도 많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에도 누를 끼칠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다른 은행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도 일부는 같은 문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예금 등으로 오인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최근 대형 생명보험사 3곳에 저축성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JS 프로텍시 플랜을 위탁판매했던 시중 은행들은 지급껏 고객들과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질 상황에 놓이자 냉가슴을 앓고 있다.

KEB하나은행 현지 법인은 사태 초반 무이자 대출로 고객들의 피해를 막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나은행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긴급자금 지원을 하는 한편 지와스라야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를 접촉해 신속한 원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의혹에 대해선 전체가 아닌 일부 사례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개별 고객에게 판매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최선을 다해 고객의 불편을 해결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와스라야 측은 지난 달 초 현지 한국대사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늦어도 4월 초에는 자산실사가 끝날 예정이며 투자자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분기 이내에 순차적인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지와스라야의 헝사나 프리 사송꼬 대표는 “보험 원금 및 이자 지급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이는 단지 시간의 문제” 라고 강조했다.

kakaoVX
up VISION SCREEN GOLF™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PT. TEEU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